

# 시리아(Syria)의 라타키아(Lattakia)주(州) 까르다하(Qardaha)시의 알라위(Alawite)족

한동대학교 아시아지역연구소 MFR(Mid-east Field Resesrch) 10기 훈련팀<sup>1</sup>

## 1. 일반개요

### (1) 종족 유래

이슬람교의 분파로 무함마드(Muhammad)의 사위인 이맘 알리(Ali)의 가르침을 따르는 종파이다. 이들 종파의 기원은 종교적 스승 무함마드(Muhammad) 이븐 누자이르로 알려져 있는데(약 9세기경) 그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제자 알 카지비가 969년경에 새 종파를 창시하였다. 새 종파는 이후 알라위(Alawite)라고 불렸는데 그들 스스로는 알라위(Alawite)라 부르며 이는 1920년대 이 지역을 통치하던 프랑스(France)에 의해 쓰여졌다. 초창기에 알라위(Alawite)는 이들을 인정하지 않는 무슬림의 박해를 피해 라타키아(Lattakia) 동남쪽 산지 지방으로 거주지를 옮겨 지금까지 그곳을 근거지를 삼게 되었다. ‘알라위(Alawite)’라는 이름은 이맘 ‘알리(Ali)’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며 예언자 모하메드의 법적 아들인 알리에 대한 그들의 존경심을 의미한다. 이슬람교 분파이나 다른 종교, 철학과 혼합된 독특한 신앙 체계를 소유하고 있다.

### (2) 종족 분포

시리아(Syria)의 알라위(Alawite) 족은 전국적으로 넓게 분포하지만, 특별히 밀집도가 높은 곳은 시리아(Syria)의 북서부지역, 특히 라타키아(Lattakia)주(州)의 라타키아(Lattakia)와 그곳에서 동남쪽으로 30Km 떨어진 까르다하(Qardaha)시(市)와 그 인근 지역으로 이곳은 99%가 알라위(Alawite) 종파이다.

<sup>1</sup> 위 보고서는 한동대학교 아시아지역연구소 MFR(Mid-east Field Resesrch) 10기 훈련팀 에서 2006년 7월 6일 - 26 일까지 시리아 라타키아주 까르다하를 중심으로 알라위족을 현장조사한 내용이다.

### (3) 정체성

#### 1) 연령, 지역별 외래 문물 선호도

연령은 젊은 층일수록, 지역은 외국인과의 교류가 많은 지역일수록 외래문물 선호도가 높다. 급격하게 개방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쏟아져 들어오는 외국 문화와 상품, 사고방식 등에 대하여 젊은이들은 완전히 맘이 열려 있다. 레코드점에는 외국 영화 DVD와 음반 CD등이 즐비하고, 펜시점에도 외국 만화 캐릭터들의 상품이 진열되어 있다. 외국계 브랜드 패스트푸드점과 젊은 층을 겨냥한 유사한 국내 브랜드 업소가 활발히 영업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고, 시리아(Syria)의 인기 가수 중 한 명도 ‘George’ 라는 미국식 이름을 쓰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젊은 층의 문화적 취향이 서구로 옮겨졌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하겠다.

알라위(Alawite)가 비록 이슬람이라고는 하지만 정통 이슬람에서 변형된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여성들이 히잡을 쓰지 않고 기성복을 입는 등 옷차림에 있어서도 시리아(Syria) 내 순니(Sunni) 무슬림과 비교해서 상당히 자유로움을 알 수 있다. 까르다하(Qardaha) 시의 알라위(Alawite) 가정의 경우 여성의 권리가 남성과 대등할 정도로 이슬람 특유의 권위적인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다. 시리아(Syria) 내 다른 종족에 비해서 외래 문물(미국, 이스라엘 등 정치적 요소를 제외한)에 대해 보다 개방적이고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 2) 종족에 대한 자부심

시리아(Syria) 내의 다른 도시에서, 또 까르다하(Qardaha)에서 관찰한 알라위(Alawite)의 종족 자부심은 상당히 높았다. 현 정권의 대통령이 알라위(Alawite) 출신인 것도 그들의 종족 자부심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까르다하(Qardaha) 시장과 현지인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볼 때, 도심 지역에 분포하는 알라위(Alawite)보다는 까르다하(Qardaha) 지역의 알라위(Alawite)의 자부심이 더 큰 편이다.

비밀경찰의 활동처럼 정권 유지를 위한 정책들이 자연스럽게 대통령의 출신 종족에 대한 보호로 이어지면서 다른 시리아(Syria)인들은 알라위(Alawite)에 대한 이야기조차 위험한 것으로 여기며 목소리를 낮춘다. 다른 시리아(Syria)인들엔겐 어쩌면 알라위(Alawite)는 두려움의 대상일 수도 있다.

#### 3) 주 종족, 타민족과의 동화도

알라위(Alawite)와 타 무슬림들과의 일반적인 결혼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인터뷰 중 한난 한 청년은 자신은 알라위(Alawite)이지만 여자친구는 무슬림이며, 교제에 약간의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한다. 자신은 종교에 대해 특별히 의식하지 않고 종교의식도 행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자신의 부모님과 가족만 알라위(Alawite)라는 것을 유지한다고 말한다.

까르다하(Qardaha) 시를 제외한 다른 도시들에 분포하는 알라위(Alawite)의 경우 외형적으로 다른 순니(Sunni) 무슬림과 기독교인들과 큰 마찰없이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내부로 들어가면 알라위(Alawite)에 대한 순니(Sunni) 무슬림과 다른 종족들의 반발심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원인은 과거의 알라위(Alawite)에 대한 정통 이슬람의 불인정과 박해의 역사를 비롯해 알라위(Alawite)가 정치적 힘과 특권을 가지는 현 체제에 대한 불만과 비밀 경찰을 통한 타 종족에 대한 경계 등에 있다(1974년 순니(Sunni)과 반정부세력에 대해 전 대통령이 하마(Hama)에서 감행한 대학살이 그 예). 따라서 알라위 (Alawite)와 타민족간의 잠정적인 반목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도시에 거주하는 알라위(Alawite)도 순니(Sunni)과 무슬림들의 견제로 모스크에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 (4) 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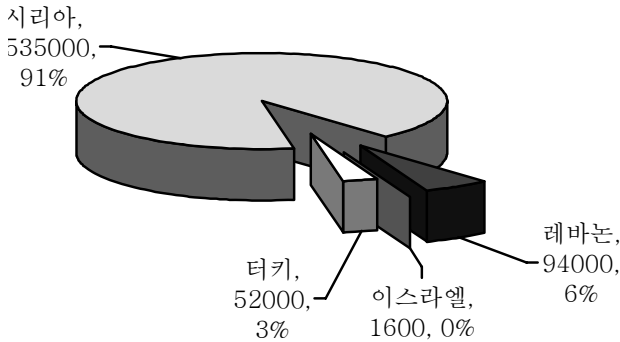
- 1) 제 1언어: 북 레반트 아랍어 제 2언어: 없음
- 2) 언어족: 아랍어족
- 3) 종족 언어와 국어와의 관계: 거의 일치함
- 4) 문자형태: 아랍 문자

〈표-1〉아랍어 기본 회화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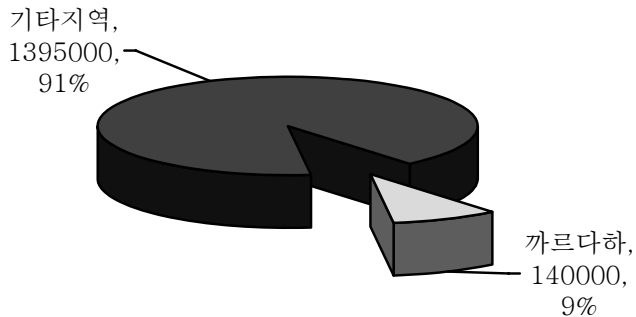
한국어	아랍어	한국어	아랍어
예 / 아니오	아이와(에이와) / 라	친구	사딕
안녕하세요	마르하바	사랑하는 사람	하비비
잘가시오	미살리마	좋다	콰이어스 / 트람
감사합니다 / 천만에요	슈크란 / 아푸완	1	와히드
고맙지만 사양할게요	라, 슈크란	2	티네인
미안합니다	미알레쉬	3	딸라따
비싸다	갈리	4	아르비아
나는 한국인입니다	아나 멘 꾸리아 제노비아	5	캄싸
상관없어요	무 무쉬갈레	6	싯타
화장실	함맘	7	싸브아
빨리	알라	8	따마니아
예쁘다(여자)	자밀	9	티쓰아
(종교/관습)절대 안됩니다	하람	10	아사라
맛있다	싸하		

## (5) 종족인구<sup>2</sup>

- 1) 지역 내 종족인구: 까르다하(Qardaha) 내 약 140000명
- 2) 타 국가의 동일 종족 분포도: (국가구분, 수(명), 백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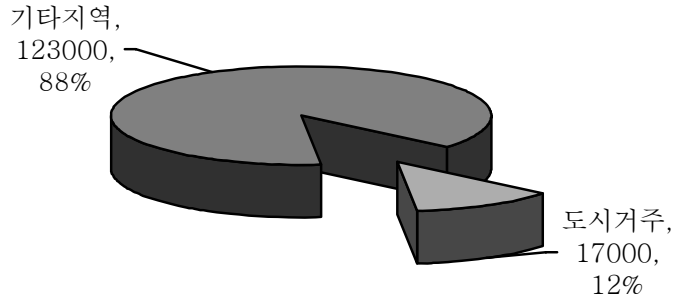
- 3) 국가 내 타 지역의 동일 종족 분포도: (지역구분, 수(명), 백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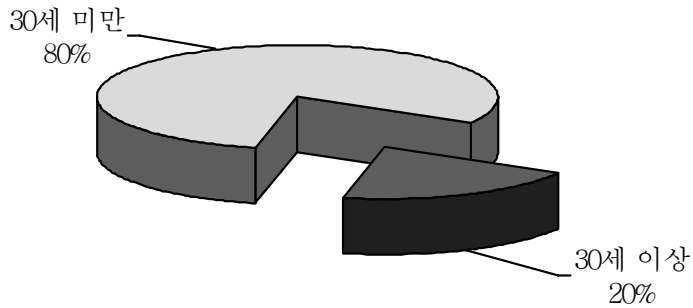
시리아(Syria) 내 알라위(Alawite)는 북서부 지역, 특히 지중해 인근의 산지 및 도시(라타키아(Lattakia), 까르다하(Qardaha) 등)에 주로 거주하며, 시리아(Syria) 내 거의 모든 도시에 흩어져 살고 있다.

- 4) 도시거주자: (지역구분, 수(명), 백분율)

<sup>2</sup> 까르다하(Qardaha) 시의 시장과의 인터뷰 자료 참조



5) 연령분포도: (연령구분, 백분율)



6) 인구증감: 시외로 이주자가 늘고 있는 반면에 출생률도 꾸준히 늘어 도시규모는 오히려 성장세에 있다.

7) 평균수명: 75세

## 2. 역사<sup>3</sup>

### (1) 기원 및 형성

9세기에 열두 시아(Shiah)파로부터 떨어져 나온 분파로 그 기원은 무함마드(Muhammad) 이븐 누자이크로 알려져 있다(883년경 사망). 그는 스스로를 11번째 시아(Shiah) 이맘인 그의 스승 하산 알 아스카리를 대표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종교적 스승인 그의 가르침을 통해 새로운 종파가 시작되었는데 이 종파가 바로 알라위(Alawite) 이다.

<sup>3</sup> <http://explanation-guide.info/meaning/Alawite.html>

## (2) 역사 연혁

### 1) 중세 역사

이렇게 시작된 알라위(Alawite) 종파는 10세기에 지금의 알레포(Aleppo)시를 거점으로 한 함다니드 왕조에 의해 그 번성기를 맞게 된다. 그러나 함다니드 왕조가 1004년에 멸망하면서 알라위(Alawite)는 쇠퇴하게 되며 1097년엔 십자군의 공격을 받게 되나 곧 이스마일리에 대항하여 동맹을 맺게 된다. 그러나 1120년에 알라위(Alawite)는 이스마일리 종파와 쿠르드(Kurd) 족에 패배하게 되고 1123년에 들어서 쿠르드(Kurd) 족에 승리를 거둔다. 1297년에 이스마일리 종파와 알라위(Alawite) 종파는 합병을 협상하지만 그 협상을 결렬되고 그 후 1260년에 들어서 알라위(Alawite)는 마메룩 법에 의해 활동에 있어서 박해를 받게 되며 1516년에 오스만(Osman) 왕조가 시리아(Syria)를 지배했을 때 지배 종족인 튀르크 족에 의해 약 9만명의 알라위(Alawite) 사람들이 살해되었다. 그 뒤 오스만(Osman) 왕조는 그 땅에 튀르크 족을 정착시키고 몇몇 튀르크 족은 방랑하던 알라위(Alawite) 트 (Alawite) 족에 의해 알라위(Alawite) 로 개종하게 된다. 그 후 알라위(Alawite) 는 다시 성장하게 되었는데 1832년 알라위(Alawite) 가 이스마일리 종파의 마을인 마사프를 공격할 때 다마스커스(Damascus)의 파사가 그들에 대항하여 군대를 보낸 기록이 있다.

### 2) 알라위(Alawite)의 근대 역사

오스만(Osman) 왕조가 망한 후에 시리아(Syria)와 레바논(Lebanon)은 프랑스(France)령의 식민지가 된다. 프랑스(France)는 알라위(Alawite) 에게 자치권을 주는 조건으로 다른 소수 종족들과 알라위(Alawite) 족을 그들의 식민지 군대로 편입시켰다. 식민지 하에 알라위(Alawite)의 족장은 독립된 알라위(Alawite) 국가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그들의 자치권을 자주 독립권으로 바꾸려는 노력으로 이어졌다. 1939년에 다수의 알라위(Alawite)가 존재하던 시리아(Syria) 북서부 지역과 알렉산드리아의 산악과 지금의 해타이 지역이 프랑스(France)에 의해 터키(Turkey)에 주어진 사건은 시리아(Syria) 아랍인들과 알라위(Alawite) 공동체에 엄청난 분노를 일으켰고 이스칸다리아(지금 터키(Turkey)의 해타이 지역)의 안티오치 출신의 자키 알 아스지라는 젊은 리더가 튀르크에 의한 자신의 출신지의 합병에 저항하면서 마이클 아플라크에 이어 바트(Baath)당(현 시리아(Syria) 정권을 쥐고있는 당)의 창시자가 된다. 1945년에 2차 세계대전 이후 알라위(Alawite) 거주지역은 시리아(Syria)에 통합된다. 알라위(Alawite) 추종자인 술레이드 알 멀쉬드가 통합에 저항하였지만 새로이 구성된 시리아(Syria) 정부에 의해 1946년 다마스커스(Damascus)에서 교살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 후 1946년 4월 16일 독립 이후 시리아(Syria)는 연속적인 쿠데타와 이집트(Egypt)와 한 국가를

형성하였다가 3년 뒤 나뉘지는 등의 일을 겪게 되며 1963년에 그 당시 정권에 불만을 품은 다수의 알라위(Alawite)가 포함된 비밀 군사 협회가 바트(Baath)당이 정권을 쥐도록 도와준다. 1966년 알라위(Alawite)로 구성된 군부는 반란에 성공하며 바트(Baath)당의 원로 세력들을 추출하고 그들만의 새로운 바트(Baath)당을 구성하며 1970년에 공군 대령이었던 하파즈 알 아사드(전 대통령)가 정권을 잡게 된다. 그는 1971년 공식적으로 시리아(Syria)의 대통령이 되며 그에 따라 알라위(Alawite)의 지위는 급속하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시리아(Syria)의 다수의 순니(Sunni)와 무슬림들은 알라위(Alawite)의 실세를 달가워하지 않았으며 아사드 또한 종교적 자유와 무슬림들의 움직임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계해 왔다. 1974년에 무슬림 형제단이 아사드를 암살하려던 계획이 실패하면서 아사드는 그에 대한 보복으로 그들의 본거지인 하마(Hama)에 대규모 군대를 보내 대학살을 감행하게 되며(최소 2만이상 최대 10만 이하의 하마(Hama) 시민들이 살해됨) 이는 아직까지 하마(Hama) 시민들의 상처로 남아있다. 2000년 하파즈 알 아사드가 사망한 후 시리아(Syria)의 정권은 바샤르 알 아사드에게 넘겨지고 그는 2006년 지금까지 시리아(Syria)를 통치하고 있다.

### 3) 현재 상황

비록 알라위(Alawite)가 상급 군부와 지적 부서들을 차지하고 있지만 시민 정부를 비롯한 국가 경제의 상당 부분들을 순니(Sunni)와 무슬림들이 이끌고 있다. 알라위(Alawite)와 엘리트계층과 순니(Sunni) 사업가들 사이의 정치경제 사회적 관계가 개선되면서 견해차이를 점차 해소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온건주의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들과도 정치적 화해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묘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아사드 정권은 모든 종파들이 힘을 공유하고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상당히 경계하고 있다.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비 순니(Sunni)집단들, 세속주의 순니(Sunni) 계층, 그리고 전통적인 순니(Sunni) 이슬람세력이 공존을 이루고 있으나 정부는 이슬람의 원리주의 부흥운동을 적절히 통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3. 생활조건

### (1) 의복

까르다하(Qardaha)의 알라위(Alawite) 사람들의 복장은 자유분방하지만, ‘알라위(Alawite)가 99%인 도시’ 까르다하(Qardaha)였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들이 무슬림 지역에서 산다면, 제한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아래 기술한 내용들이 이와 같은 제한사항 안에서 조사된 내용임을 밝힌다.

### 1) 남성 전통 복장

일상적으로 입을 수 있는 복장이 아니라서 알라위(Alawite)의 근거지인 자발 알 말렉(Jabal al malek) 산 정상에 마자르에서 관찰이 가능하다. 머리에는 하얀색 얇은 천으로 된 터번을 두르며, 상의는 안쪽에 붉은 실로 짠 셔츠나 조끼를 여러 겹 입고 겉에는 어두운색 계열로 민무늬 코트 또는 재킷을 입는다. 바지도 상의와 같은 색의 두꺼운 천으로 만들어 입는다.



### 2) 남성 일상 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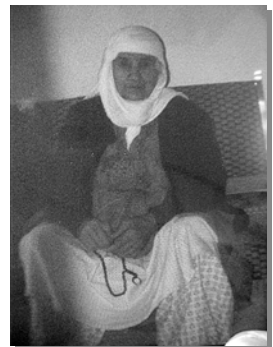
거리와 가정에서 만난 알라위(Alawite) 남성의 일상 복장은 전혀 종족적이거나 종교적 색채를 찾아볼 수 없었다. 무슬림 지역(다마스쿠스(Damascus), 하마(Hama), 알레포(Aleppo) 등에서는 보기 힘든 반바지 차림의 남성도 흔히 볼 수 있다. 어느 가정에선 남자들이 속옷차림으로 쉬다가 손님이 와도 별로 당황하는 기색이 없이 맞이하기도 했다.



거리에서 남성들의 의상 트렌드 조사를 했을 때, 상의는 라운드 셔츠나 컬러셔츠, 남방이 많았고, 하의는 청바지, 면바지가 많이 관찰되었으며 전통 복장을 입은 사람은 전혀 찾을 수 없었다. 결국 한국 시내 풍경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중동의 다른 정통 무슬림 지역과는 극히 대조적이고, 그중에서도 어느정도 개방적이라는 시리아(Syria) 내의 무슬림 지역 도시보다도 훨씬 자유로운 모습이었다. 신발도 운동화, 샌들, 캐주얼 슈즈 정도로 자유롭게 착용하며, 액세서리는 선글라스와 목걸이 정도이다.



알라위(Alawite)만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 간간히 손목에 ‘킬리아’ 라는 얇은 녹색 팔찌를 착용한 사람이 보이는 것인데, 이것은 자신이 알라위(Alawite)임을 알리는 표시이자 기도 의식을 대신할 수 있는 도구로, 원하는 사람만 착용한다.



### 3) 여성 전통 복장

알라위(Alawite) 여성의 전통 복장에는 흰색 민무늬의 얇은 히잡이 있다. 상의는 발목까지



내려오는 불규칙한 무늬의 원피스 위에 반코트 형식의 두꺼운 실로 만든 재킷을 걸친다. 하의는 우리나라 남자 한복의 하의와 흡사한 통이 큰 바지를 입는데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체크무늬가 들어가고 발목부분의 신발 위에서 끈을 대어 묶게 되어있으며, 일어섰을 때 원피스가 발목까지 내려와 바지는 거의 보이지 않게 된다. 역시 산지에 근거지를 둔 알라위(Alawite)의 특징을 따라 방한의 의미가 큰 복장이다.

#### 4) 여성 일상 복장

까르다하(Qardaha) 거리에서 만난 알라위(Alawite) 여성들은 종교를 넘어 국적의 착각을 일으킬 만큼 자유스럽다. 젊은 여성층에서는 민소매 탑이나 몸매를 드러나는 셔츠, 반바지, 짧은 치마 등이 상점에 디스플레이 된 것을 볼 수 있으며, 길에서도 이와 같은 옷차림을 한 여성들이 대부분이다. 히잡을 쓴 사람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몸에 붙는 청바지가 유행하고 있으며, 귀걸이나 목걸이 등의 액세서리 착용과 매니큐어, 얼굴 메이크업도 일반적이다. 여성 또한 간간이 착용하고 있는 킬리아(알라위(Alawite)임을 나타내는 얇은 녹색 팔찌)외에는 종교적 느낌을 주는 어떤 장신구나 복장도 찾아 볼 수 없다.

## (2) 보건위생

### 1) 위생시설 및 위생정책

쓰레기더미와 쓰레기통들이 도심 외각 곳곳에 모여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쓰레기 종량제는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수거차량이 모아진 쓰레기를 수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도시 곳곳에 쓰레기통이 산발적으로 비치되어 회수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 모습이다. 거리 곳곳에서 버려진 휴지와 쓰레기들을 볼 수 있으며 쓰레기를 소각하는 가정도 관찰할 수 있다. 정육점에서는 고기를 상온에 걸어 놓는다거나 제육제품을 관리하는 모습이 비위생적이다.

### 2) 의료시설

까르다하(Qardaha) 시에서 관찰된 것으로는 종합 병원이 1개소, 산후조리원이 1개소가 관찰되었는데 그 외에도 상당수가 존재한다. 까르다하(Qardaha) 종합병원은 수도인 다마스쿠스(Damascus)에서 수술 받으러 올 정도로 시설이 좋으며, 의료시설의 확충에서는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 3) 질병

특정하지 않은 여러가지 암 발생률이 높으나, 까르다하(Qardaha)에 있는

의료시설로는 암 치료가 어려운 것이 실정이다. 조사기간(하계) 동안은 유제품으로 인한 고열, 복통, 설사 등의 식중독이 유행하였다.

#### 4) 위생관념

까르다하(Qardaha) 마을의 전체적인 외관은 자연과 친밀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시골마을이다. 산악 지형에 위치하고 있고 농업이 주 산업이기 때문에 주거지역과 산 주위는 자연친화적이고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시장이 형성된 마을 중심가에서는 환경에 대한 위기의식이나 관리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 쓰레기가 늘어져 있거나 침폐수가 고여있는 거리와 높은 차량 이용률, 분리수거 정책 미실시 등을 볼 때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아직 민감하지 않은 것으로 관찰된다. 발달이 많이 되지 않은 시골 마을이어서 높은 건물이나 깨끗하게 조형된 건물이나 체계적인 도시관리는 이루어 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3) 물/식수

#### 1) 환경오염 및 보호에 대한 생각

식수 및 상하수도 공급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마당에 수도와 연결된 호수로 물을 뿌리는 가정의 모습을 종종 관찰 할 수 있다. 이것으로 보아 특별히 사막지대로 인한 수도 공급의 어려움이나, 보호에 대한 생각은 적은것으로 보인다. 골란고원(Golan Plat.)을 거쳐 하마(Hama)를 거쳐 흐르는 오론텐스(Orontes)강이 까르다하(Qardaha)에서 멀지 않은 곳에 흐르기 때문에 수자원 문제에 대한 급박성은 다른 중동 사막 지역에 비해 적은 것으로 보인다.

까르다하시의 자연경관 ↓



## 2) 식수 공급

마을 곳곳에 존재하는 상점에서 쉽게 물을 살 수가 있다. 1.5 l 에 25리라면 구입할 수 있다. 원한다면 언제든지 식수를 사 먹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현지인들은 수도물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 3) 상 하수도 시설

상 하수 시설 원활한 것으로 보인다. 가정마다 수도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었으며 세면대에 온수 시설도 갖추어져 있다.

## (4) 식생활

1) **식사시간**: 가장의 출근 시간에 맞추어서 가정마다 유동적이지만 대체로 아침식사 9~10시, 점심식사 15~16시, 저녁식사 21~22시 정도이다. 식사 소요시간은 5~10분 정도로 상당히 빨리 먹는 특징이 있다.

2) **식사방법**: 식사는 개인 접시에 음식을 덜어서 먹는 방식이며 스푼과 포크를 사용하여 식사를 한다. 쌀밥을 먹을 때에는 스푼을 사용하고 샐러드 등을 먹을 때 포크를 사용한다. 식사 후 음료, 차, 커피, 과일등을 디저트로 먹는다.

3) **요리**: 음식은 쌀을 주식으로 요리한 음식이 많다. 아침식사는 우유, 달걀, 라반, 파다이야 등으로 간단하게 먹고 점심이나 저녁식사는 양고기, 닭고기, 쇠고기, 감자, 쌀 음식, 샌드위치 등을 먹는다.

## 4) 주식

① **아루즈**: 두가지 종류의 쌀이 있었다. 첫번째는 한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타원형의 모양의 쌀이다. 맛 역시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찰기가 있고 고소하다. 현지가정을 방문했을 때 밥에 약간의 양념을 해서 찝찝한 맛을 주는 밥을 대접해 주었다. 다른 종류의 쌀은 약간 길쭉한 형태의 쌀이었다. 이 쌀밥은 찰기가 적고 밥을 할 때도 얇은 마카로니와 함께 삶은 다음 올리브 기름 등으로 볶아서 요리한다. 주식으로 먹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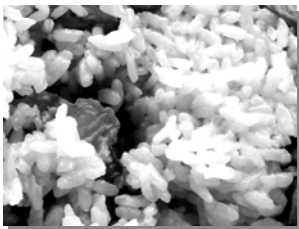
② **코브즈**: 시리아(Syria) 전체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주식이다. 식사 때 마다 개인그릇 옆 식탁위에 한장씩 둔다. 밀가루를 얇게 펴서 화덕에 구운 빵으로 누룩없이 구웠기 때문에 얇고 부풀지 않는 밀가루 빵이다. 이 빵에 야채 등을 써서 먹기도 하고 잼이나 유제품을 얹어 먹기도 한다.

③ **마클로바**: 밥을 할 때 가지, 감자 등을 함께 넣고 삶은 음식이다. 우리 음식과 비슷한 느낌으로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다.

④ **마흐쉬**: 아랍 음식에는 야채 속을 비운 다음, 그 속에 양고기나 소고기, 그리고 다른 양념과 재료를 넣고 만드는 '마흐쉬'가 있다. 대표적인 것에

호박, 양배추, 가지, 당근, 양파, 감자, 피망 마흐쉬가 있다. 길이 10cm 정도의 가지를 잘라 속을 비운 후 가지 안에 볶은 밥을 넣고 이것을 고기 국물에다 삶은 음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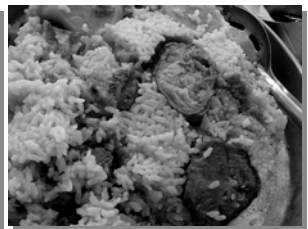
- ⑤ 파술리야: 콩을 깍지채로 기름을 많이 넣고 볶은 음식으로 빵에 넣어 먹거나 반찬으로 먹는다. 고소한 맛이 난다.
- ⑥ 파다이야: 얇은 빵에 여러가지 고기, 피망, 후추 등의 양념을 올려 오븐에 구운 것으로 간단한 식사로 쓰일때가 많다.
- ⑦ 라반: 우유를 발효시켜 만든 요거트와 같은 소스이다. 빵이나 밥과 함께 먹는데 시큼한 맛이 강하다.
- ⑧ 타블리: 토마토와 여러가지 야채들을 잘게 썰어 올리브 기름에 버무린 후 레몬 소스를 곁들인 샐러드로 독특한 야채향이 난다.



이루즈



코브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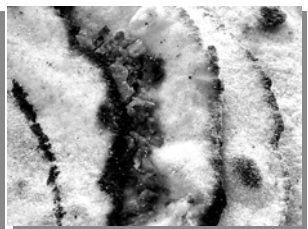
마클로바



마흐쉬



파술리야



파다이야



라반



타블리

## 5) 식사 예절

손님을 초대할 때 수시로 차를 권한다. 홍차를 주로 아랍어로는 '샤'라고 불리는데, 홍차를 좋아하고, 여러 사람이 모인 장소면 어김없이 등장한다. 뜨거운 '샤' 찻잔의 반에 찰 정도의 설탕을 넣어서 매우 달게 마신다. 지나가는 외국인인 우리들에게도 자주 차를 권하며 학교나, 관공서, 집 등 들르는 곳마다 차를 대접 받게 된다. 이들은 한 자리에서 여러 잔씩 마시는데,

어린이들도 이 홍차를 즐겨 마시는 것으로 보였다.

손님으로 온 사람이 식사 때 음식을 많이 먹지 않으면 주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는 것으로 여겨져 주인은 손님에게 음식을 많이 권하고, 손님은 많이 먹는 것이 미덕으로 통한다.

## (5) 주거

### 1) 주거형태

종파마다 집단거주(集團居住)를 형성하고 있어서 까르다하(Qardaha) 지역에 알라위(Alawite) 종파가 종족적인 특징을 띄며 거주하고 있다. 근년의 새로 개척된 땅에 고급 주택들이 들어서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결혼한 후에는 부모로부터 분가해서 나가는 것이 통상적이나 한집에 여러 대가 함께 사는 모습도 쉽게 관찰된다. 남성은 결혼 후 부모와 가까이 사는 경우가 많으며 여성의 경우 남편 쪽을 따라 이동한다.

### 2) 가옥형태

#### ① 가옥외부

극히 부유한 계층이나 소유한 저택을 제외하고는 가옥의 외형은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다. 도색이 되지 않거나 철근이 나와있거나 미장을 하지 않아 블록이 그냥 보이는 가옥이 대부분이다. 경제적 어려움이라기 보다는 이들의 문화로서 이해할 수 있겠다. 어느 집이나 베란다가 있어 밖에서 가옥의 베란다를 쉽게 관찰할 수 있다.

#### ② 마당

좁든지 넓든지 마당은 어느 집이나 있으며, 유 무실수를 구분 없이 많이 키우고 있다.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석류나무등을 볼 수 있다. 특히 포도나무 내부는 겉과 달리 페인트나 벽지, 카펫, 타일 등으로 단장되어있다.

#### ③ 옥내

살내에서도 신발을 신고 생활하며, 거실을 제외하곤 침실일지라도 카펫도 깔지 않은 맨바닥의 형태이다. 화장실, 부부의 침실 가 어느 집에서도 쉽게 관찰되었다. 마당은 더운 시간대에 가족의 활동 장소로도 활용된다. 정도를 제외하고는 방문을 달지 않은 경우도 많다. 천장에 큰 선풍기가 어느 공간에나 달려있다. 따라서 형광등은 벽면 상단에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 특징적이다.

#### ④ 거실

거실의 활용률이 상당히 높고, 가옥 공간 분배의 비중도 크다. 소파와 탁자

등으로 아늑하게 구성 되어 있으며 대체로 거실에는 화려한 커튼으로 장식된 큰 창을 내어 채광이 좋다. 장식장, TV, 액자, 사진 등으로 화려하게 꾸며 놓는다. 꾸란 구절이나 이맘 알리(Ali)의 그림도 종종 걸려있다. 부엌이 요리 용도 외에는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식사를 하는 공간이기도 하며 손님 맞이, 가족생활공간의 중심이다.

⑤ 침실

침대와 옷장 그리고 간혹 있는 화장대 정도 외엔 어떤 가구도 들여놓지 않는다. 서재가 따로 있는것도 아닌데 어느 방에도 책상과 책꽂이가 없는 것이 인상적이다. 부부는 더블 침대를 쓰는 가정도, 싱글 침대 둘을 따로 쓰는 가정도 있다. 젊은 층이 사용하는 방의 경우엔 인기 연예인의 브로마이드가 붙어 있기도 하다. 수면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모습이다.

⑥ 부엌

특징적인 것은 없다. 식당은 거실로 이어지며 흔히 창고나 불박이 장이 딸려있는 경우가 많다. 조리에 필요한 도구들이 갖춰져 있다. 한국처럼 식사 공간을 겸하여 사용하지는 않고, 오직 조리만을 위한 공간이다.

⑦ 화장실

가옥에 따라 수세식 좌변기나 재래식 화장실의 모습을 띄며 후자의 경우는 샤워실과 구분되어 있다. 재래식 화장실은 화장실 벽면에 수도와 연결된 호수로 용변 후 물을 뿌려 용변을 내린다.

⑧ 냉 난방

시리아(Syria)에서는 어디를 가든지 각 방마다 천장에 큰 선풍기가 달려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가정에서는 부유층을 제외하곤 에어컨을 찾아보기 힘든데, 사무실 같은 경우는 한국처럼 대부분이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다. 가정에는 불박이 식 연탄난로가 여름철인데도 그냥 비치되어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

⑨ 농촌 가옥의 외관

까르다하(Qardaha) 중심지역에서는 2, 3층의 가옥형태가 주로 눈에 띄고, 건평 도 넓은 편이다. 작은 가옥이라도 마당이 있으며 울타리도 쳐져 있다. 자발 알말렉 산 주변지역 농촌은 도심과 확실히 경제적 차이가 나서 가옥이 빈약한 모습이다. 울타리나 마 당이 거의 없고, 도로변에 바로 가옥 문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단층 건물이 대부분이며, 채광창도 작다. 도색이나 미장이 된 가옥은 도심보다 훨씬 찾아보기 힘들다. 가옥 내부도

외형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서, 도심과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가옥 외부 모습



정원



거실



침실



부엌



방바다 있는 대형선풍기

## (6) 지형이 삶의 방식에 미치는 영향

까르다하(Qardaha)는 전체가 산지와 언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지형 때문에 농업은 계단식 농업을 주로 하며 밀, 올리브 등의 농작물 재배율이 상당히 높다. 언덕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은 가까운 거리라도 오토바이, 자가차량, 택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동하는데, 특별히 오토바이 활용이 두드러지게 많다.

〈표-2〉개발 정도 비교표

항목	개발 정도	
	도시/중심지	변두리/시골/마을
보건위생	3	1
교육	3	1
균형있는 식품	3	1
방송국(라디오/TV)	3	U
좋은 식수	2	U
주택	3	2
통신(전화/인터넷)	1	U
전기시설	3	U
공공시설	2	1

0: 없음 1: 빈약 2: 그저 그렇다 3: 충분함 U: 알려지지 않음

## 4. 문화

### (1) 문화적 특성

개방적이며 전반적으로 밝고 활동적이면서(밝은 색상의 옷, 대중 음악과 팝송 등) 약하지만 종교적 색채를 느낄 수 있다(꾸란 글귀가 적힌 액자와 기도실 등).



### (2) 예술

종교 지도자인 이맘 알리와 하산 나스랄라(헤즈볼라 지도자)를 비롯해 하파즈 아사드(전 대통령)과 관련된 그림 등을 많이 접할 수 있다. 나머지 다른 시리아 (Syria) 내 종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 1) 음악

시리아(Syria) 내 대중 가요와 더불어 서구의 유명 팝송이나 재즈 등에도 관심이 많다. 음악에 관심이 많은 경우 신디 같은 악기를 구입해 집안에서 연주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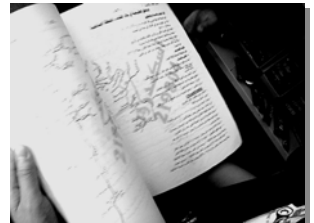
#### 2) 춤

종족 특유의 전통 춤이 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손님을 초대해서 노래를 하거나 잔치 때와 같이 흥겨울 때에 춤을 추며 매우 흥겨워하며 즐긴다.



#### 3) 문학

하파즈 알 아사드의 전기와 바트(Baath) 당과 관련된 혁명 역사, 그리고 꾸란과 이맘 알리에 대한 해설서 형식을 비롯한 여러 과목의 교과서가 주를 이룬다.



### (3) 오락 형태

특별한 오락 활동은 없으며 청년들끼리 모여 앉아 차나 담배를 하거나 어린이들의 경우 학교 공터에서 축구하는 것을 즐긴다.

### (4) 명절

국가 공휴일(4월 17일 독립기념일과 3월 8일 바트(Baath) 혁명일을 비롯하여 무함마드(Muhammad)의 생일)이 대표적인 명절이며 원래 쉬는 날(토, 일)을 겹쳐서 이슬람의 명절을 지키기도 한다

### (5) 결혼

보통 결혼은 남자는 30세 여자는 25세 정도에 한다. 남자는 결혼 자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여자보다 좀 늦게 결혼한다. 공개적으로 결혼식을 알린 후 하루 정도 결혼이 진행된다. 결혼식은 먼저 이른 아침에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결혼을 한다. 그 후 신랑의 집에 와서 간단한 식을 한번 더 올린다. 결혼식 복장은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한다. 결혼 후 신혼 여행도 떠난다. 지참금은 정해져 있지 않고 신부측 아버지와 신랑의 일종의 계약 증서를 교환 함으로써 성사된다. 실제적인 지참금은 이혼하게 되었을 때만 지불하게 된다.

## (6) 장례

길에 천막을 치고 의자를 두고 장례식을 치룬다. 장례식에 온 손님들에게 특별히 더 쓴 아라비안 커피를 권한다. 관련 없는 현지인 행인은 장례식을 하는 장소에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고 피하여 길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는 모습을 관찰 할 수 있다.



## (7) 예절

### 1) 인사법

만날 때 ‘마르하반’ 이라고 인사하고, 헤어질 때 ‘마살라마’ 이라고 인사한다. 특별히 반가운 사람을 만났을 때는 볼에다 서로 입을 맞추는 인사법을 사용하는데, 동성간에는 오른쪽 볼 한번, 왼쪽 볼 한번, 다시 오른쪽 볼에 한번 입을 맞추고, 이성간에는, 오른쪽 볼에만 세 번 입을 맞춘다.

### 2) 일반 예절

손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집을 방문한 방문객들은 극진히 환영 받게 되는데 이것은 수세기에 걸쳐서 손님은 신령한 진리(sacred truth)로 여기고 있는 무슬림 전통 때문이기도 하다. 음식을 대접할 때 손님에게 많은 음식을 대접하며 손님은 많이 먹는 것이 초대할 가정에 대한 예의이다.

## (8) 금기

금기하는 일을 하면 ‘하람’ 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례하다, 금기한다’ 는 의미이다. 이것은 이슬람 법을 어긋난다는 의미한다. 그런데 알라위(Alawite) 족에게 있어서 그런 금기사항은 체계적이지 않는 것으로 관찰된다. 일상 생활에 있어서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잘 행해 지지도 않는다. 또한 금기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어떤 규제를 받는 것도 아니다. 오래된 관습처럼 여겨져서 젊은이들이나 어린아이들은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1) 떨어진 음식

먹던 것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음식이 포함된다. 모든과일과 샌드위치, 햄버거를

바닥에 버리는 것과 밟아도 하람이며 떨어진 음식물을 발견하면 한쪽으로 치워야 한다. 하지만, 아이스크림, 비스킷, 콜라 등은 바닥에 떨어져도 ‘하람’ 이 아님을 보았을 때 ‘하람’ 을 규정하는 정확한 법은 없으며 우리나라의 미신적 관습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 2) **조상의 무덤:** 밟고 지나가거나 무엇인가 올려놓는 것이 ‘하람’ 에 포함된다.
- 3) **식물:** 마른 잎사귀, 가지 등은 제외하고 살아있는 잎사귀 가지 등을 꺾는 것은 ‘하람’ 이다.
- 4) **신체 접촉:** 세계 때리는 것과 신발로 때리는 것은 ‘하람’ 이다.
- 5) **발이 하늘로 향하는 것:** 알라에 대한 모욕이라 여겨 ‘하람’ 이다.

#### (9) 매스컴(라디오/TV/신문/영화/비디오/레코드/인터넷)

TV는 CNN은 나오지 않고 알자지라 방송, MNET 음악채널과 시리아(Syria)방송이 나온다. 비디오는 상점에서 DVD로 된 영화를 팔고 까르다하(Qardaha) 내에는 따로 영화관이 없다. 영화관을 이용하려면 라타키아(Lattakia)시로 나가야 한다. 레코드는 가게에서 테이프와 CD로 된 레코드들을 판다. 인터넷은 한달에 5달러를 내고 13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보급된다. 속도는 느리고 보급된 가정도 까르다하(Qardaha)에 5가정 정도 밖에 없다고 한다.

#### (10)문화 변동

이미 알라위(Alawite)의 전통적인 복장, 음악, 춤, 문학 등은 외래 문화에 자리를 넘겨준 상황이다.

## 5. 사회 구조

### (1) 가족 구조

가족은 일반적으로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되지만, 결혼한 자녀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모습도 쉽게 관찰된다. 가족 구성은 부모와 자녀로 4~5명이 일반적이다. 한국처럼, 결혼 후에는 여성이 출가하여 남편의 집에서 살게 된다. 가정내에서 남성과 여성의 지위가 거의 평등한 것으로 보인다. 의사소통이나 의견을 표현하는 데에 있어서도 여성은 자유롭게 의사를 전달한다.



## (2) 종족 공동체 구조

알라위(Alawite)족의 근원지라 할 수 있는 시리아(Syria) 북서부 지역인 까르다하(Qardaha)가 그들의 발원지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99%가 알라위(Alawite)다. 즉 이들의 공동체 구조는 까르다하(Qardaha) 지역에 집단거주한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알라위(Alawite) 종파는 시리아(Syria) 전 지역에 걸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이것은 외부로의 교통, 통신 등이 자유롭고 이동에도 많은 불편함이 없기 때문이다. 즉 외부지역과의 접촉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개인의 편의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거주하기도 한다.

## (3) 리더쉽, 지배 구조

가족 구조 내에서도 일반 대인 관계에서 나이로 인한 리더쉽 구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18~19세 정도의 청년이 60세 이상의 노인의 어깨를 손으로 툭툭 치고 무례하게 굴어도(한국의 전통 문화 내에서 이것은 무례한 행동이라고 본다) 자연스럽게 받아 들인다. 어린아이가 청년쯤 되어 보이는 형을 세게 치면서 장난치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다.

## (4) 이웃과의 관계/의사소통 실상

까르다하(Qardaha)는 알라위(Alawite) 종파가 대대로 살아오던 지역이다. 따라서 혈연과 인맥을 따져보면 서로가 남이 아니라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알라위(Alawite) 친 인척 조직처럼 보인다. 따라서 이웃 관계는 상당히 밀접하고 가족적이고 친근하다. 이러한 까닭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실시하는 복지정책 없이도,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선과 봉사, 기부를 활동을 실시하는 모습이다.

#### (5) 주변 민족과의 관계

까르다하(Qardaha) 밖에서 알라위(Alawite)는 시아(Shiah)/순니(Sunni) 무슬림이나 쿠르드(Kurd), 기독교, 천주교, 정교회 등의 신자들과 무리없이 어울려 살아가는 모습이다. 정치 권력과 연계되지 않는 순수 종파간의 갈등은 전무한 수준이다.

#### (6) 규칙/권위/선택

알라위(Alawite)는 시리아(Syria)의 종교적 성향이 가미된 이슬람 법인 '샤리아(Sharia)법'을 따라 살며 그들만의 종교적 규칙과 규제는 크게 특이할게 없는 수준이다. 알라위(Alawite)만의 정통 교리서가 없는 이상, 종교 집단으로서의 알라위(Alawite)는 연장자의 경험과 판단에 상당한 권위를 부여한다.

#### (7) 사회적 관습/모임/계층구조

길을 가다가 쉽게 식사 초대나 차를 함께 마시자는 권유를 받을 수 있는데 모임 중에는 늘 샤이(홍차)를 권한다. 아이들과 어른이 한 자리에 앉아서 식사나 모임을 함께 할 수 있다.

#### (8) 법정 기관/재판 처벌:

법정 기관과 재판이 존재하지만, 소송은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한다. 정말 큰 사건이 아닌 이상, 문제들은 당사자들이나 각 당사자들 집안의 연장자들이 합의 하에 처리한다.

## 6. 교육

정규교육은 6살에 시작해서 12년 동안 실시하고 정규 교육 과정을 거치면 대부분 대학에 진학한다. 사립학교 2개, 공립학교 4개가 있고 어느 학교에도 교복은 없다. 까르다하(Qardaha)의 모든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고 있다. 12학년의 교육 과정 동안 공립은 무료이며 사립은 등록금이 있다. 방학은 7월부터 2~3달 가량에 걸쳐 방학이다.



#### (1) 문맹률: 성인 문맹률은 20%이다.

## (2) 가정교육

가정 교육에 대한 조사는 확실치 않다. 하지만 알라위(Alawite)의 경우 학교에서 알라위(Alawite) 정체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가정 내에서 알라위(Alawite)로써의 정신과 종교의 계승이 이루어 질 수 밖에 없는 환경이다. 까르다하(Qardaha)내에 사교육 기관이 많지 않고 공교육 기관을 제외하고는 유 소년들을 관리해줄 적절한 시설을 찾을 수 없다.

## (3) 유아교육

유아원 1개소 (1~4세), 영아학교 1개소(5~7세)가 있다. 출산율이 높아 아이들이 많은 것을 고려해 볼 때에 유아에 대한 교육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가정교육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나 가정교육에 대한 조사가 확실치 않다.

## (4) 초등교육

초등교육 기관은 사립, 공립 합쳐 3개이고 이 3개의 학교가 까르다하(Qardaha)의 모든 초등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모든 공립학교에서는 꾸란을 기본 교과과정에 포함시킨다. 사립학교에서는 꾸란을 가르치지 않는데 까르다하(Qardaha) 내에 존재하는 사립학교 역시 꾸란을 가르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슬람은 모스크에서도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나 알라위(Alawite)의 경우에는 그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 없다. 특히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체제로 국가에서 주체사상을 주입하는 교과서를 찾아볼 수 있어 어릴 때부터 국가의 사상들을 주입 받고 있음을 수 있다.

교육 환경은 교사, 학생 비율은 한 반이 17명 안팎으로 편성되어 교사 한명당 학생수는 한국보다 낮다. 학교에서 지급한 교과서가 전부이고 다른 교재들은 없는 실정이다. 교과서는 마을내에 교과서만 전문으로 파는서점 가서 살 수 있다. 30~50리라 정도면 구입할 수 있다.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운동장은 시멘트로 되어있고 그다지 크지 못하며 축구골대나 농구골대 등의 시설이 없는 상황이다. 전체적인 학교 건물이 작아 증축 및 보수가 필요하다. 공립학교와 비교하여 사립학교는 시설이 상대적으로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다.

### 알바이루니(Albairony) 사립 초등학교

- 1) 재학생 수: 200여명.
- 2) 수업 과목: 10개 과목이며 (아랍어, 영어, 수학, 물리, 화학, 지리, 역사, 철학, 영어, 컴퓨터) 꾸란은 가르치지 않는다. (공립 학교에서는 꾸란을 가르친다.) 1학기과 2학기에 교과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가르치는 과목이 서로 다르다.
- 3) 교사 수: 과목별로 1명씩. 10명
- 4) 수업시간: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 5) 시설: 교실은 컴퓨터실까지 포함해서 총 5개이고, 교무실, 남녀 화장실, 매점이 있는 단층건물이다. 컴퓨터실에는 컴퓨터가 4대, 프린터가 1대있다. 인터넷은

사용이 불가능하다. 시멘트 바닥으로 된 운동장이 있다. 축구골대나 농구골대 같은 시설은 없다.

- 6) 알바이루니(Albairony)가 학교 설립자이며 전국적으로 알바이루니(Albairony)의 이름을 딴 학교들이 있다. 복도에 ‘알바이루니(Albairony)’의 사진이 걸려있다.
- 7) 교장 선생님을 제외하고는 영어를 잘 못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아이들도 영어를 듣고 말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영어 교육은 실제로 이루어 지지 못함을 알 수 있다.
- 8) 방학인데도 보충 수업을 하고 있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수업이 이루어 진다.

## (5) 고등교육

고등교육 기관은 3개있는데 1개는 남녀 반이 나뉘어져 있다. 까르다하(Qardaha)는 교육열이 높아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학교에 다니며 방학에도 오전에 한국의 보충수업과 같은 수업을 한다. 그리고 학교에 다니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교로 진학한다.

## (6) 사교육

사교육 기관이 미비한 실정이다. 전국 도시에 분포되어 있는 에듀케이션 센터(Education Center)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학원으로 보이며,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과목들(미술, 네일아트, 헤어디자인 등)의 과외 학습을 담당하고 있다. 이 지역에 경우 까르다하(Qardaha)에서 약 50분 정도 라타키아(Lattakia)로 나가면 에듀케이션 센터(Education Center)에 갈 수 있다.

까르다하(Qardaha) 중심가에서 악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간판을 단 건물을 볼 수 있었는데 이곳에서 악기 연주를 가르쳐주는 학원으로 보인다.

## (7) 교육의 필요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운동장이나 체육시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학교 시설을 전체적으로 증축할 필요가 있다. 사교육 기관이 필요하다. 특히 예능적인 부분을 학교에서 교육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음악, 미술, 체육 분야를 개발시켜줄 사교육 기관들이 좀 더 필요하다.

좀더 실용적인 영어 교육을 위해 영어 회화가 가능한 영어 교사가 필요하다. 컴퓨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인터넷 보급률도 매우 낮고 활용도도 낮은 것으로 보인다. 컴퓨터 교육시설의 보충이 필요하다.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정치사상이나 이념에 대해 주입식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현 정권을 이루고 있는 정부 역사나 혁명 역사에 대한 과목을 따로 책으로 배우고 있다. 좀더 객관적이고 다방향적이고 객관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 7. 청소년/여성/노인

### (1) 청소년

#### 1) 교육 현황

까르다하(Qardaha)에는 초등교육 기관과 고등교육 기관이 갖추어져 있다. 초등학교가 3개있고 우리나라 중,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가 3개 있으며 그 중 3개가 국립이고 나머진 사립이며 사립과 공립의 시설 차이가 현저하게 크다. 이곳에서 청소년들은 아랍어, 영어, 수학, 물리, 화학, 지리, 역사, 철학, 영어, 컴퓨터 등을 배우게 된다. 거의 모든 청소년들이 학교에 나가 공부를 하고 있다. 12년 정규교육 과정이 끝나면 거의 모든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정도로 교육열은 타 지역에 비해 수준이다 그리고 졸업을 한 후 40분 거리의 라타키아(Lattakia)시에 있는 슈린 대학에 거의 모든 학생이 입학한다. 공립학교는 초등교육 기관과 고등교육 기관이 무료다. 대학교는 다마스쿠스(Damascus) 대학교의 경우 일년에 20만원 정도의 등록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교를 간다.

#### 2) 노동

청소년들 중에는 방학 중에 아버지가 운영하는 가게를 돕거나 경우에 따라선 대신 보는 경우가 많으며 일을 하기엔 한낮이 너무 더운 중동 날씨의 특성상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가족과 많이 보내기 때문에 특별히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는 청소년들은 없어 보인다.

#### 3) 청소년들의 성에대한 인식

이슬람국가의 특징 상 여성과 남성은 서로 말을 하지 않거나 접촉을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반해 까르다하(Qardaha)에 있는 알라위(Alawite)족은 남성과 여성간의 접촉이 자유롭다. 이성간의 대화가 마치 우리 나라에서 이성 친구와 대화하는 듯이 자연스럽다. 알라위(Alawite) 청소년의 경우 이성 친구 간의 친근감을 표시하는 스킨쉽이나 애정 표현을 흔히 볼 수 있으며 이성 또한 그에 대한 거부감은 없어 보인다. 이러한 이성에 대한 자연스러운 태도는 이는 대가족 안에서 부모님과 더불어 수많은 형제 자매와 함께 지내면서 형성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 4) 도덕성 기준

알라위(Alawite) 청소년들 또한 꾸란을 읽으며 그들의 관습법을 존중하는데 이는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 형성된다. 따라서 도덕성의 기준에 있어서는 기성

세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듯 하다.

## 5) 가족의식

가족의식은 아주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한 예로 우리가 방문한 Mr.나빌의 집은 한 집에 형제들이 모여 살면서 서로에 대한 애정을 각별하게 드러내었으며 다른 형제의 자식에 대해서도 친자식과 같은 애정을 나타내었다. 까르다하(Qardaha) 알라위(Alawite)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부모와 형제들간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자라고 있으며 가족 구성원들을 동등하게 보는 알라위(Alawite) 가정 분위기상 가족들로부터 그들의 입장을 많이 존중받고 있다. 알라위(Alawite) 청소년들은 결혼 적령기로 남자는 27-30정도이고 여자는 25미만으로 생각하며(남자 결혼이 늦는 것은 결혼을 위한 재정적 여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가족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다.

## (2) 여성

### 1) 여성교육 실태

남성의 교육과 별 다른 점을 보이지 않는다. 공평하다. 초등교육과 고등교육에서 남성,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없고 집에서도 보내지 않는 다든가의 차별은 없다. 진학을 또한 비슷하며 대학을 가는 진학을 또한 동일하다. 라타키아(Lattakia)의 쉬린 대학에 진학하여 공부하는 여성들도 상당수다. 무슬림 교리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알라위(Alawite)의 경우 남성만큼은 아니라도 여성의 교육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 2) 여성의 지위와 역할

시리아(Syria) 전체적으로 볼 때 여성들의 지위가 향상되고 있다. 취직의 기회도 늘어나고 있으며 개방되고 있다. 알라위(Alawite)의 경우 집에서의 여성의 지위는 남성과 거의 평등하다. Mr.나빌 집은 외부인인 우리가 갔을 때에도 잠옷을 입고 있거나 갈아입은 옷도 원피스나 달라붙는 옷을 입었다. 오히려 집의 분위기를 휘어잡는 쪽은 여성이었다. 종속적인 모습도 보였는데 몇몇 집을 들리면서 남성의 말에 여성이 거의 무조건 듣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여성이 집의 대부분의 가사일을 담당했고 남성은 부엌 근처에 가면 우스꽝스럽게 웃거나 이상하게 여겼다. 취업의 기회가 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학업 후 대부분 결혼을 하여 집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젊은이들의 의식에 있어서는 집안에서 가사 일만 하는 전통적 역할뿐 아니라 요즘에는 가사와 더불어 자기 일을 가지는 여성들이 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 재택 근무를 하기도 한다. 남자가 일을 하고 가사 일만 담당하는 경우도 가정 내에서 남성과 여성의 지위가 대등한 경우가 많다. 여성의 옷차림과 감정



표현에 있어서도 다른 순니(Sunni)와 무슬림에 비해 자유로운 편이다. 하지만 아직까진 경제적이나 사회적 지위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그 역량은 큰 편이다.

### 3) 가정과 사회에서 기대하는 여성상

다른 중동국가보다 정도가 덜하지만 시리아(Syria)도 여성보다 남성의 지위가 더 높으며 여성에게 남편을 내조하며 자식을 양육하는 전통적 역할을 많이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순니(Sunni)와 무슬림들의 영향이 크며 알라위(Alawite)의 경우는 여성에게 고등 교육을 시킴과 더불어 사회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학을 나온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러한 경향이 더 강하다

### 4) 부녀자에 대한 인식/성차별

알라위(Alawite)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녀자에 대한 인식은 중동 국가들보다는 다르다. 부녀자라고 해서 특별히 남성에 비해 드러나게 차별을 두진 않는다(한 예로 집안 내에서 남성과 똑같이 담배도 피고 외부인과의 악수도 자유로우며 시집간 딸이 부모 가까이 살아 자주 보는 경우가 많다) 다만 외도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에 대해서 더 엄격한 편이며(부녀자 중엔 외국 관광객이나 타인이 말을 거는 것조차 꺼리고 회피하는 경우도 있음) 법적으로 시리아(Syria) 내 여성의 출입이 통제되는 곳도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정도가 약하지만 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5) 여성문제

알라위(Alawite) 여성들의 경우 다른 순니(Sunni)와 무슬림 가정의 여성에 비해 교리적 통제가 적음을 알 수 있다(히잡을 쓰지 않거나 마을 내 출입이 자유롭고 이곳에선 이슬람 국가들에게서 종종 볼 수 있는 명예살인 같은 것은 생각조차 하기 힘들고 법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을 정도이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정도는 약하지만 이슬람 법인 샤리아(Sharia)가 적용된다.

## (3) 노인문제

### 1) 노령화

시리아(Syria)는 국민 평균 연령이 21살이 채 안 될 정도로 인구가 젊다. 까르다하(Qardaha) 시의 알라위(Alawite)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전체 인구의 80%가 30대 미만일 정도로 유년과 청년 층이 두텁다. 한 가정당 아이를 많이 가져서 출생률이 높은 데다 복지나 보건 시설의 부족으로 사망률 또한 높은 탓에 노령 인구의 증가가 여러 선진국에 비해 매우 느린 편이다. 하지만 근래 들어 아이를 적게 낳는 가정이 늘고 있고 보건 복지 여건 또한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노령 인구는 앞으로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 2) 노인공경

나이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보는 아랍 문화의 영향상 젊은이와 노인 간의 대화 또한 거리낌이 없는 편이지만 아랍 어에서도 나이 든 사람에 대한 예의는 존재한다(앗쌀라말라이쿰이 안녕하세요 라면 살람은 안녕이라는 정도의 의미, 전자는 어른에게, 후자는 아이들에게 쓰는 인사다). 까르다하(Qardaha) 알라위(Alawite) 사람들의 경우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해 일을 못하는 노인들을 위한 복지 시설은 없지만 지역 유지들의 자선과 봉사, 기부를 통해 이들을 돕고 있다. 이것은 오래 전부터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았던 까르다하(Qardaha) 알라위(Alawite) 사람들의 전통 탓에 가능하다고 여겨진다.

# 8. 경제

경제 개발은 한국으로 말하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5년 마다 시리아(Syria) 개발 초점이 새롭게 정해진다.

## (1) 산업구조

농업이 주산업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소매업이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 20대의 직업에 경우 소매업이 농업을 넘어서서 점차 소매업이 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2) 생산물/천연자원

담배, 올리브, 사과, 체리, 토마토 등 대부분이 농산품이다. 많은 이들이 1차산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알라위(Alawite)들의 본향이라 할 수 있는 자발 알 말렉(Jabal al malek) 산의 경우 높은 산지의 특성을 살려 계단식 농업을 하고 있다. 이곳에서 대부분 곡물들을 수확하고 있다.

## (3) 직업

요즘 젊은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은 의사이다. 까르다하(Qardaha)의 직업 분포를 살펴보면 농업, 공무원, 소매업 순으로 나타난다. 소매업은 까르다하(Qardaha)가 성장하면서 생겨난 얼마 안된 직업이다. 그 중 20대의 직업분포는 학생, 소매업, 농업으로 나타나 들어 온지 얼마 안 되는 소매업이 점차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4) 경제 상태 및 발전 수준

시장은 그리 크지 않은 규모로 한국의 작은 시골의 시장 정도이며 상점밀집지역

또한 100미터 정도의 작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라타키아(Lattakia) 등지의 도시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다양한 상점이나 음식점, 문화시설 등이 부족하다. 특히 각지에 늘어나고 있는 인터넷 카페가 까르다하(Qardaha)에는 없다.

음식점은 라타키아(Lattakia)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지만 가격은 라타키아(Lattakia)와 비슷한 수준이고 과일 가격은 라타키아(Lattakia)의 시장에 비해 5리라정도 비싼 수준이다. 택시비는 대부분의 까르다하(Qardaha) 중심지의 대부분의 곳을 갈 때 50리라 정도면 충분하다.

기반 시설들은 우체국 2개소, 병원 1개소, 산후조리원 1개소 소규모 의원 1개소 등이 갖추어져 까르다하(Qardaha)시의 규모를 생각할 때 부족함이 없다. 오히려 병원 시설이 좋아 다마스쿠스(Damascus) 등지에서 까르다하(Qardaha)로 병원을 찾아온다.

까르다하(Qardaha)는 현 대통령의 고향이다. 마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아사드대통령의 부자와 관련된 장소가 매우 많다 곧 이 마을 자체가 정치역사적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예를 들어 하파즈 알 아사드와 그의 첫째 아들인 마셀 아사드의 무덤이 마을 외곽에 위치한다. 이 무덤은 매우 크고 웅장하다. 이곳으로 연결되어 있는 도로 역시 다른 곳과 확연히 차이가 날 정도로 잘 정비되어 있고 매우 아름답다. 곧 마을 자체가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를 기념하려는 의미에서 정부차원의 특별한 보조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사드 대통령과 관련된 장소로는 하파즈 알 아사드 전대통령무덤, 하파즈 알 아사드 생가, 하파즈 알 아사드 어머니무덤과 마자르 등이 있다.

- 1) 상점분포: 1위 잡화점(그릇, 생활용품, 슈퍼마켓등), 2위 신발가게, 옷가게, 3위 전기 전자 통신, (전화기 드라이기, 선풍기, 등) 4위 식료품(정육점, 음식파는 가게,) 5위 술 담배집
- 2) 상점: 핸드폰, 음악, 장난감, 신발, 잡화, 페인트, 전자제품, 옷, 가구, 과일 가게
- 3) 자동차: 일반차량: 한국차 27.5% 나머지는 외국차  
마이크로 버스, 봉고차: 일본차, (도요타, 마즈다, 미쓰비시) 72% 현대18%

## (5) 경제 불평등

산위에 아주 좋은 집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마스쿠스(Damascus) 등지의 큰 도시에서 일을 하는 부유한 사람들의 집이다. 까르다하(Qardaha)는 다른 도시들과는 다르게 노숙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없다. 경제적으로 우위인 사람들은 개인주택에서 살고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파트 밀집 단지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균 정도의 생활 수준은 유지하고 있다.

자발 알 말렉(Jabal al malek) 산의 농촌 마을을 방문했을 때, 도시와는 현격하게 차이가 있는 의식주 생활이 관찰되었다. 이들은 주로 산에서 계단식 농업을 하며 밀과 기타 확인되지 않은 농작물 재배가 많다.

## (6) 경제 개발 필요 분야

1차 산업에 산업이 집중되어 있어 좀 더 나은 생활을 즐기기 위해 2, 3차 산업과 서비스 산업등의 성장이 필요하다. 작은 시장과 상점 그리고 문화시설의 미비로 인해 까르다하(Qardaha)에서 라타키아(Lattakia)로 나가 물건을 사는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분에서 좀 더 성장이 필요하다. 기반 시설 중 소방시설을 갖추지 못해 자칫 건조한 기후에 산이 많은 까르다하(Qardaha)에 산불이 나면 진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하루 빨리 소방시설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암에 걸리는 사람이 많은데 이를 위한 치료시설이 마련되어있지 않아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또한 필요하다. 까르다하(Qardaha) 시장점과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결과 국가 전체적인 5년 계획을 따르고 있다고 했다. 이는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구체적이거나 체계적이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까르다하(Qardaha)만의 특성을 살린 경제 개발 계획이 필요하다.

## 9. 종교

### (1) 종교개관

- 1) **원시종교:** 알라위(Alawite) 종파 (자발 알라위(Alawite) 지역의 자발 알말렉(Jabal al malek) 산이 그 근원지)

〈표-3〉 알라위족 종교 현황표

종교명	사원수(마자르)	성직자	신자	비율
알라위(Alawite)	190개 (까르다하 내)	없음	약140000명	99.99%이상
기독교	없음	없음	2가정	0.01%

### 2) 알라위(Alawite) 종교 개관:

시리아(Syria)지역의 극소수 이슬람 분파이나 현재 시리아(Syria)의 정권을 잡고 있는 그룹이다. 이론적으로 알라위(Alawite)는 시아(Shiah)파의 비주류로 분류되지만, 정통이슬람의 기준으로 이들은 극단주의자로 여겨지며 무슬림의 범주에서 벗어난 것으로 여겨진다. 이들은 일반적인 무슬림의 신앙적 고백 말고도 삼위일체와 희생의식, 그들만의 독특한 신앙고백을 신봉하고 있으며 이스마일리파(영지주의 이슬람)와 기독교의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 3) 기원과 역사

알라위(Alawite) 교는 Gnosticism(1-4세기에 널리 퍼진 영지(靈智)를 숭상하던 이단적인 크리스티교)와 Neo-platonism(신 플라토니즘)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보여진다. 알라위(Alawite)족종파는 약 서기 900년에서 1100년까지 파티밋족이 이집트(Egypt)와 팔레스틴을 통치하던 시기에 태생했다. 파티밋족은 임박한 "마디" 혹은 구원자의 도래를 믿는 이슬람 시아(Shiah)파들이었다. 그 당시 여러 번 이 "마디"가 존재한다면서 새로운 종파들이 나타났다. 알라위(Alawite)족은 11세기 시아(Shiah)파 후손중 가장 특출한 종족중의 하나이다.

900년동안의 핍박을 견디면서 그들은 아직까지 1,000,000명이 넘는 성도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중에는 시리아(Syria) 대통령을 4번이나 집권한 하페즈 알 아사드와 같은 세계적인 인물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교리를 보호하고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들의 교리를 비밀스럽게 전수하고 타 종족들에게는 숨겨왔는데, 그것은 힘이 약했던 알라위(Alawite) 그룹이 자신들을 보호 하기 위해서였다. 현재는 시리아(Syria)에 집권세력으로 30년 가까이 집권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알라위(Alawite) 종족의 발전이 순탄하게 상승하였다.

### 4) 종교전래의 방법

주로 입을 통하여 전하는 방식으로 종교를 전파한다. 종족내의 교리입문시간에 배우게 된다. 15세에서 16세의 알라위(Alawite) 남자는 수 시간의 입문 단계 교육이 이뤄지지만 그때부터는 신학생이 될 것인지 그냥 신자가 될 것인지 부족장에게 자신의 선택을 알린다. 만약 신학을 택한다면 입문단계의 교육을 심화 시켜 더 긴 시간에 걸쳐 공부를 하게 된다.

### 5) 종교적 세계관

무함마드(Muhammad)의 사촌인 이맘 알리(Ali)의 가르침을 따르는 종파이다. 플라톤, 알라 등 11명의 신을 믿으며 그 중에는 시아(Shiah)파 이슬람이 신성시하고 섬기는 후세인과 성모 마리아, 예수님도 포함된다. 이슬람 공통의 성인이자 선지자인 무함마드와 알라, 그리고 이맘 알리(Ali)가 한 하나님이라는 삼위일체 사상을 가지고 있으며 이맘 알리(Ali)가 성육신이라고 여기는 점, 7번의 삶과 죽음을 반복하고 업보에 따라 사람이나 동물, 유대인 등으로 환생한다는 윤회 사상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비 이슬람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 예수님을 신으로 믿지만 성육신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다른 이슬람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을 믿지 않으며, 라마단을 지키며 아랍어로 쓰인 꾸란만을 인정한다. 유향과 올리브 기름, 꾸란 등이 있는 마자르(알라위(Alawite) 파의 성인들의 무덤 위에 세워져 있음)라는 기도실에서 기도를 드리며 무덤에서도 돈을 던지며 기도를 드리는데 그곳에선 동물과 같은

희생제를 통한 제사가 이뤄진다.

기이한 시리아(Syria)의 산악 지형에서의 공동체의 정신을 잃어버려 윤리적인 부분과 가치적인 부분이 해이해져 있다. 알라위(Alawite)에 관한 흔한 오해는 그들의 믿음을 실천하지 않는 다는 것과 중심 요소를 기독교의 믿음과 세속적인 것에서 가져왔다는 것이다. 사실, 알라위(Alawite)분파 안에는 신앙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 별 경각심이 없는 태도를 보이는 문화가 있다. 알라위(Alawite)들은 이것을 허용한다. 그러나 공동체가 그러한 것은 아니다.

## (2) 교리

- 1) **경전:** 신성한 책은 프랑스(France)어로 번역되고 프린트된 것이다. 이것은 알라위(Alawite)가 19세기 중반 크리스티교로 개종하면서 베이루트(Beirut)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만든 이는 알라위(Alawite) 동료의 배신으로 살해되었다.
- 2) **신앙고백:** 알라위(Alawite)는 알리(Ali)를 삼위일체의 신의 성육신으로 여긴다.
- 3) **삼위일체:** 무하메드와 자신들의 초대 이맘, 그리고 알리가 한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으며 알리가 성육신하여 인간에게 온 하나님이라고 믿는다.
- 4) **죄와 구원:** 알라위(Alawite) 믿음에 의하면 처음에 모든 사람은 세상의 빛인 별이었다. 그러나 불복종에 의해 하늘에서 떨어졌다. 물질적 세상은 위험하고 불결한 장소였다. 치명적인 악의 현존은 창조주의 도움에 의해 사라졌다. 모든 알라위(Alawite)는 그의 영혼 안에 창조주의 한 줌의 빛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그로 하여금 구원의 바른 길로 이끌거나 안내한다. 신실한 알라위(Alawite)는 그들이 반드시 별 중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 즉, 알리(Ali)가 있는 장소로 돌아오기 전까지 7번 전환되거나 윤회한다고 믿는다. 만약 그들이 큰 죄가 있다면 그들은 때때로 크리스찬이나 유대인으로 다시 태어나며 그들 가운데서 그들은 속죄가 끝날 때까지 남게 된다. 신앙이 없는 이는 동물로 다시 태어난다.
- 5) **기독교와의 연관성:** 종교의 높은 혼합적 자연성으로 인해 철학자들은 알라위(Alawite)즘이 크리스티교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삼위일체 이론을 가지고 있으며 성배의 형태로 와인을 마시며 크리스마스를 인식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문헌들이 그들의 의식이 페니키아인의 희생 의례의 잔존을 포함함을 보여준다.
- 6) **특징:** 상당 부분이 비이슬람적이며, 초기 동양 종교적 요소를 담고 있다. 알라위(Alawite)의 신조는 문자로 기록되는 대신,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비밀리에 전해 내려왔으며 오늘날까지도 비밀 종교로 남아있다. 알라위(Alawite) 종족은 모스크 대신 개인 기도실을 갖추고 있다. 또한 이슬람의 종교적 의무(하루 다섯 번 기도하기, 라마단 기간 중 금식하기 등)를 인정하지 않지만, 타민족의 박해를 받으면 종족 보호를 위해 이슬람 의식을 따르는 경우도 있다.

- 7) **오해들:** 알라위(Alawite)족은 자신들의 교리를 문헌으로 남기지 않는다. 현재, 지금까지 번역된 책은 한 권이 있으며 많이 왜곡된 부분이 있어서 알라위(Alawite)족 내에서도 제 삼자의 입장에서 많은 논란과 오해가 있다.

8) **신관**

삼위일체의 신관을 가지고 있으나 무함마드(Muhammad)와 알리 초대 이مام이 삼위일체라고 생각한다. 그 중, 알리는 삼위 일체 하나님의 인간의 모습이라고 믿는다.

9) **구원관**

드루즈(Druze)족처럼 알라위(Alawite)족은 영혼의 윤회를 믿는다. 신실한 알라위(Alawite) 족은 7번의 윤회를 거쳐 천국으로 돌아가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지옥으로 간다고 믿는다.

10) **사후세계관**

알라위(Alawite)들의 사후 세계관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7번까지 윤회하는데, 전생의 선악을 가려 좋은 사람으로 혹은 짐승으로도 환생한다. 7번까지 환생을 거친 후 선악의 분별을 통해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된다.

- 11) **용서에 대한 개념:** 정통 이슬람과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

- 12) **옳고 그름의 판단기준:** 판단의 기준을 꾸란에 대한 알라위(Alawite)적 해석과 그들의 관습법에 따라서 한다(알라위(Alawite)만의 경전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나 진위 확인 못함).

(3) **종교 의식**

1) **마자르**

죽은 사람의 무덤 위에 세워진 알라위(Alawite)의 종교의식 장소이다. 까르다하(Qardaha) 내에 190개, 적국적으로 100만개가 있다고 한다. 마자르가 세워지지 않은 무덤은 대리석 관 모양으로 지상에 돌출되어있으며 이곳에서도 예배 의식이 있다고 한다. ※ 이하 언급되는 마자르는 번호로 대체



①언덕 위의 마자르



②아사드의 무덤



③아사드 모친의 무덤



④시장 근처 마자르



⑤자발 알 말렉 산꼭대기 마자르

## 2) 마자르 건물 및 내부관찰

### ① 건물

4~5평 남짓한 크기에 높이는 3미터 가량 되는 작은 마자르다. 창이 두 군데 나있으며 전체가 아이보리색으로 도색되어있다. 인부들이 증축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궁전같이 크고 높은 대리석 건물로 상공에서 보면 별 모양이다. 커다란 하나의 홀로 되어있으며 천정이 상당히 높다. 무료로 개방하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다.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사람들이 단체로 관광 오는 모습도 목격되었다.

전형적인 이슬람 모스크를 연상시키는 마자르다. 침탑 하나가 높이 솟아 있었고, 아잔 방송을 위해 스피커도 달려있었다. 건물에 들어가기 앞서, 몸을 씻는 곳으로 보이는 수도시설도 밖에 나와있었다.

전 대통령 어머니의 마자르답게 크고 웅장한 모습이다. 마자르 내 분수가 있었고, 히잡이 비치되어 있었으나 착용할 것이 요구되진 않았다. 예배의식을 진행하는 홀은 일반 이슬람 모스크와 다른 점이 없었다. 살내는 상들리에, 스테인드글라스 등으로 장식되어있으며, 연회장, 응접실 등으로 보이는 큰 방이 더 있다.

8~10평 정도의 크기에 긴 쪽 벽면에 문이 나 있다. 짧은 양쪽 벽에는 창이 나있다. 바닥엔 카펫이 깔려있고, 거실 같은 느낌을 준다.

긴 쪽 30미터 가량, 짧은 쪽이 15미터 가량, 높이 3미터 정도의 단층 건물이다. 4개의 방이 병렬로 늘어져있고 한 개의 방은 앞과 뒤의 긴 복도가 이어져 있다. 방 마다 한 개씩의 봉우리가 솟아있고 봉우리 끝에는 초승달



모양의 장식이 달려져 있다. 뒷면 복도의 벽에는 7개의 창문이 달려있다. 입구쪽 복도는 천장이 개방되어있고, 각 방으로 통하는 문이 있다. 방 뒤쪽으로 늘어진 복도로 통하는 방은 하나 밖에 없고, 그 방은 다른 방과 달리 비어있다. 복도 전체가 다 알 수 없는 낙서로 가득하고, 창이 7개 있어서 빛이 들어온다.

## ② 제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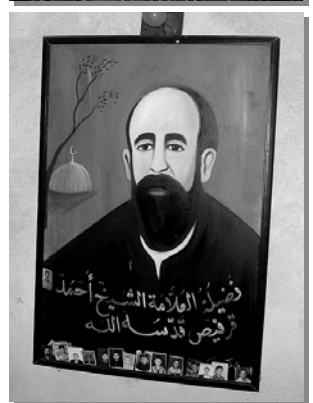
각 마자르에는 제단처럼 보이는 조형물이 있는데, 크기나 재질 등은 각 마자르마다 다르다. 시멘트로 된 사각 기둥 모양으로 가슴 높이까지 올라온다. 녹색 천으로 감겨진 것이 보이고, 그 위에는 올리브 기름, 유향, 꾸란 등이 올려져있다. 다른 제단은 없고 하파즈 아사드의 관과, 마셀 아사드의 관이 안치되어 있다. 녹색 천으로 덮여 있으며, 관의 머리맡에는 꽃 장식과 함께 꾸란이 펼쳐져 있다. 대리석으로 된 직육면체 모양으로 정강이 높이 정도이며 관을 연상시킨다. 양쪽에 2개 있었으며 전체가 녹색 천으로 덮여있다. 나무로 된 직육면체로 가슴까지 올라오며 커다란 옷장을 연상시킨다. 전체가 녹색 천으로 덮여있으며, 많은 꾸란과, 사진, 액자, 유향, 카펫 조각 등이 올려져있다.



## ③ 내부에서 관찰한 것들

방 한가운데 제단 같이 시멘트로 1미터 정도 높이의 사각형의 제단이 만들어져 있다. 제단 측면에 구멍속에 현지인은 사진을 넣어 두기도 하는데 이것은 자신의 평안과 안녕을 기리는 것으로 보인다. 신성한 곳에 사진을 넣어두는 것은 이곳뿐만 아니라 시리아(Syria) 전체적인 종교적 전통인 것으로 보인다. 방은 4~5평 정도로 단칸이다. 다른 아무런 장식은 없다. 증축중인 인부들도 보인다. 창이 2개 나있고, 내부는 전체 아이보리 색으로 도색되어 있다. 천장은 돔 형태이다.

화려하게 주변을 돌아가며 장식된 관이 2개 있는데, 하파즈 아사드와, 마셀 아사드의 것이다. 내부까지 전체가 대리석이며, 조명은



채광창을 이용하고, 조금 어둡게 해둔다. 곳곳에 화분과 액자 등으로 꾸며진 모습이다. 내부 전체는 유향의 피워두는데 연기로 가득차 있어 특유의 향과 연기가 뿌옇게 차있다.

상들이리가 방마다 많이 달려 있었다. 본당에는 모든 것이 이슬람 모스크의 그것과 동일했으며, 응접실, 회의실로 보이는 방들은 화려한 조명과 아름다운 타일들로 꾸며져 있었다. 의자를 많이 들여놓았으며, 어머니와 아사드가 그려진 큰 그림이 있는데 어머니에게서 후광이 비치는 것으로 보아 신격화 우상화 되고 있는 듯 했다. 곳곳에 어머니와 아사드, 그의 두 아들 사진이 걸려있었고, 꾸란 구절로 된 액자나 부조물도 많았다.

창이 양쪽으로 난 8~10평 정도의 방이다. 카펫이 깔려져있고, 시계, 액자, 방석 등이 보인다.

한 방이 4,5평 남짓이다. 녹색 철문으로 가려져 있고 방 내부는 채광이 전혀 없어 칙흑같이 어둡다. 방 입구에는 팻말이 붙어있고, 방 안에는 1,2 혹은 3사람까지 남자 어른이 들어가 있는데, 이들은 목주를 돌리거나 꾸란을 읽거나 이야길 하고 있는 모습이다. 방 마다 3개까지의 푸른 천으로 덮여진 제단(?)이 있다. 내부 벽면엔 마자르의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의 초상화와 거기 붙여진 많은 증명사진을 모아놓은 액자가 있다. 한쪽에 가득 꾸란을 쌓아놓은 방도 보인다.

### 3) 예배 의식

#### ① 일반적인 마자르

제단에 입을 맞추고 이마를 대는 것이 예배 행위이다. 특별히 절하는 것이나 꾸란을 외는 등의 모습은 관찰되지 않는다. 유향은 향로 위에 올려 성냥으로 불을 붙여 연기를 날린다. 향을 마자르 내에 가득 채운다. 꾸란은 마자르에 항상 비치되어 있으며 아랍어로 되어있다. 알라위(Alawite)라고 특이한 꾸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올리브 기름은 양 볼에 바르는게 전통인 듯 하다. 마시기도 하며, 상처에 바르면 빨리 낫는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사진을 넣어 두기도 하는데, 복을 빌기 위한. 특히 ⑤마자르에는 많은 수의 개인 증명 사진이 관찰된다. 방문객들이 자신의 복을 빌며 꽂아 놓은 것이다. 모금함 역시 초록색이다. 나무로 된 상자이고 돈을 모금하는 것으로 보인다.



## ② 하파즈 아사드의 무덤

사람들이 참배하는 모습은 관을 향하여 손바닥을 허리춤에서 하늘로 펼치고 있다가 얼굴을 쏘아 내리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다. 관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게 되어있고, 입을 맞추거나 하는 행위는 없다. 건물에 가득하도록 유향을 많이 피운다. 정숙하고 엄숙할 것이 요구된다. 군인과 경찰 등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지키고 있다.

## ③ ‘킬리아’ 예배의식

알라위(Alawite)만 착용하는 녹색 팔찌를 킬리아 라고 한다. 녹색 천을 꼬아 만든 것으로, 크거나 끈 형태는 특별히 제한이 없다. 모든 알라위(Alawite)가 착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착용하지 않는다고 잘못도 아니다. 킬리아에도 마자르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입을 맞추고 이마에 갖다 댄다. 마자르에 가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고 한다.

## (4) 정치와 종교

### 1) 정치세력

시리아(Syria)의 정치세력은 1970년 하파즈 알 아사드의 무혈 쿠데타로부터 지금 바샤르 알 아사드까지 2대에 걸쳐 바트(Baath)당의 ‘아사드’가 집권해오고 있다. 하파즈 알 아사드는 까르다하(Qardaha) 빈농 출신으로 대통령의 자리에까지 올랐던, 까르다하(Qardaha)의 영웅적 인물이다. 그가 2000년에 사망하자, 그의 아들 바샤르 알 아사드가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 현재까지 집권해있다.

### 2) 정치와 종교 연관성

이러한 알라위(Alawite) 종파 출신의 대통령 집권은 시리아(Syria) 내에선 상당히 민감한 문제였다. 비록 알라위(Alawite)가 이슬람 종파이긴 하나, 74%에 이르는 시리아(Syria)의 순니(Sunni) 무슬림들은 결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시리아(Syria) 내에서 약소세력이었던 알라위(Alawite) 종파가 정치적으로 막대한 힘을 얻게 되자, 온건주의 무슬림들은 이 사실에 분개하기 시작했다. 1982년 강경 순니(Sunni)파 ‘무슬림형제단’ 이 하마(Hama)에서 쿠데타를 일으켰으나, 하파즈 알 아사드 대통령이 이를 무력으로 완전히 제압한 사건이 있었다. 이를 통해 순니(Sunni)파 무슬림들의 정부를 향한 항의는 기가 꺾였고, 알라위(Alawite)의 지위는 크게 신장된 것으로 보인다.

순니(Sunni)파, 알라위(Alawite)파 라는 개념은 종족의 구분 개념이 아닌 종파의 구분 개념임을 생각할 때, 시리아(Syria)의 정치 깊숙하게 자리잡은 종교적 대결 구도는 굳이 설명이 필요치 않다.

### 3) 우상화 현상

#### ① 하파즈 알 아사드 일가

이와 같은 까르다하(Qardaha) 출신 대통령의 선전은 알라위(Alawite)에게, 특별히 까르다하(Qardaha)에 큰 영적 의미를 부여한다. 알라위(Alawite)가 그들의 조상을 숭배하는 신앙이 있음을 볼 때 더욱 그러하다. 하파즈 알 아사드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그의 첫째 아들인 마셀 알 아사드, 둘째 아들이자 현 대통령인 바샤르 알 아사드는 단번에 알라위(Alawite)의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

하파즈 알 아사드와 그의 첫째 아들 마셀 알 아사드의 우상화 현상은 그들의 무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덤을 거대한 마자르로 꾸며 살내가 뿌영도록 유향을 피운 것과, 참배객의 행동이 단순한 애도가 아닌, 손을 허리춤에서 하늘로 향해 펴고 멈춰있다가 얼굴을 झ여 내리는 일종의 예배의식의 느낌을 주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 그리고 초상화에 후광을 표현해 놓은 모습은 이들이 우상화 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시 중앙에 서 있는 하파즈 알 아사드의 동상과, 호텔이며 관공서며 학교 등지에 걸려있는 그의 사진, 차량 후면 유리, 길거리 벽에, 상점 문에 그의 포스터가 아직 붙어있다. 사망한지 벌써 6년이 된 시점에서 아직도 이것들이 붙어있다면, 이것은 단순한 존경의 의미 이상으로 해석된다.

하파즈 알 아사드의 어머니를 위해 건축한 마자르도 마찬가지인데, 무덤이 아닌 이슬람 모스크의 양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모스크와 똑같은 홀이 있고, 따로 마련된 별관 등에는 역시나 초상화에 후광을 표현해 놓은 그림과, 아사드 일가의 사진 및 초상화가 줄지어 있다.

현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에 대한 숭배는, (그가 아직 살아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해석할 만한 예배행위는 보이지 않았으나, 까르다하(Qardaha) 어디를 가든지 그를 볼 수 있었다. 포스터, 사진, 초상화, 스티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그의 얼굴을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전대의 사실들을 미루어 보아 바샤르 알 아사드에 대한 숭배도 어느 정도인지는 예상 할 수 있다.

## ② 헤즈볼라

헤즈볼라는 이란 정보기관의 배후 조정을 받는 중동 최대의 테러 단체로 '신의 당' 또는 '이슬람 지하드' 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들은 '이슬람 공동체로서의 중동 통일' 을 슬로건으로 걸고, 이를 방해하는 세력들에 대한 테러를 자행하는데, 주로 미국인과 미국의 자산을 테러한다. 현재 이스라엘(Israel)과 레바논(Lebanon)의 전쟁의 원인이 된 단체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중동 국가들이 그렇듯 시리아(Syria)도 미국과 이스라엘 (Israel)을 동일시하여 적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이스라엘(Israel)의 레바논(Lebanon) 공격에 대해서도 맹렬하게 비난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전 알라위(Alawite)도 역시 마찬가지다. 'No America' 를 외치며 환호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나타난 주목할 만한 현상은 헤즈볼라와 그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를 사람들이 영웅으로 떠받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여태껏 가져왔던 이스라엘(Israel)과 미국에 대한 좋지 않는 감정이 헤즈볼라가 과거에 미국과 이스라엘(Israel)을 향해 펼쳐 왔던 테러와, 지금 이스라엘(Israel)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는 전쟁을, 사람들이 영웅적이고 정의로운 행동으로 여기도록 자극한 것이다. 이슬람에 지하드라는 개념이 있어서이기도 하겠지만, 이들은 진정으로 '전쟁' 을 정당하게 생각하고 있다. 어쩌면 누구도 손대지 못한 미국이란 거대 국가에 대한 전쟁을 과감하게 벌여나가는 헤즈볼라를, 미국이란 존재에서 자신들을 구원해줄 '신' 으로 여기고 있는지도 모른다.

거리에선 헤즈볼라 심벌과, 하산 나스랄라가 그려진 깃발을 꽂아 놓은 상점, 오토바이, 택시 등을 쉽게 접할 수 있고, 포스터를 붙인 차량이나 상점들도 눈에 띈다. TV에서는 레바논(Lebanon)과 이스라엘(Israel)의 전쟁을 보도하는 동시에,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전쟁 의식을 고취시키는 영상들이 계속해서 방영된다. 거리에서 만난 어떤 사람은 처음 만난 핸드폰으로 하산 나스랄라의 연설과 전쟁의 선포를 알리는 영상을 보여주며 자랑스러워했다. 이러한 중동과 미국의 대결구도, 전 아랍 국가들의 헤즈볼라에 대한 지지, 시리아(Syria)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 등이 사람들의 사고를 막고 있다. 이 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을 못하도록 누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헤즈볼라는 까르다하(Qardaha)에서 또 하나의 우상으로 추앙받고 있다.

## 10. 기독교 상황

### (1) 기독교 개황

- 1) **기독교인(복음화율)/등록교인:** 0.01%미만/2 가정
- 2) **종족언어 성경:** 있음
- 3) **종족언어 영화 “예수” :** 있음
- 4) **종족언어 기독교 방송매체:** 알라위(Alawite) 종족들에게는 복음주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청취하거나, 위성을 통해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렇지만 복음을 설명해줄 수 있는 현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기란 매우 드문 일이다
- 5) **교회형태:** 존재하지 않음
- 6) **교회 성장률:** 0%
- 7) **교회수/목회자수/평신도지도자수:** 교회, 목회자 없음
- 8) **기독교 반응도:** 긍정적이며 호의적, 그러나 수동적인 태도
- 9) **종교적 변화에 대한 개방정도:** 알라위(Alawite) 족의 개종에 대해선 강경한 태도
- 10) **사역단체:** 없음
- 11) **선교시수:** 없음
- 12) **선교역사:** 1856년과 1958년 사이에는 개혁주의 장로교회 소속 미국, 영국 선교사들이 알라위(Alawite) 종족들의 거주지에서 전도 활동을 벌였으나 알라위(Alawite) 종족의 토착 교회는 결국 세워지지 못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후손들 가운데는 박해에 견디다 못해 조상들의 종교로 다시 돌아가는 일도 있었고, 최근 수십 년 동안은 시리아(Syria)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많은 이들이 시리아(Syria)를 떠나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일들이 있었다. 알라위(Alawite) 종족들을 대상으로 복음의 사역이 다시금 시작되어야 하지만, 현재 시리아(Syria) 내에서는 전도 활동이 금지되어 있다.

### (2) 선교를 위한 접근방법

#### 1) 선교에 대한 정부의 태도:

기독교를 인정하지만 쿠르드(Kurd)나 알라위(Alawite) 같은 정치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종족에 관한 선교에 대하여는 극도로 경계하며 비밀 경찰 등의 활동으로 이들에 대한 사역자들의 접촉이 제한되는 상황이다.

## 2) 현재의 필요

현지 사역자들 간의 선교 네트워크 형성과 더불어 까르다하(Qardaha) 내 교회의 건립과 그곳을 섬길 전문인 사역자의 필요성, 시리아(Syria) 내 사역자와 현 정권을 위한 중보 기도의 필요성, 시리아(Syria)를 위해 헌신할 더 많은 사역자들이 필요한 현실이다.

## 3) 호응도 높은 사역

현지 사람들의 외국인에 대한 태도는 상당히 호의적인 편이다. 그렇기에 신분상 사역자에 비해 자유로운 단기 선교팀의 현지 사역(소수 종파에 대한 선교, 현지 예배 섬김, 중보 기도 등)의 파급 효과가 생각보다 크다(현지 선교사님 말씀). 아랍어로 된 성경과 그들의 종교를 먼저 이해하고 설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방식의 전도에 대해 현지인들의 수용도는 아주 높으며 현지인들을 위한 중보 기도 또한 힘들고 어려운 여건에서 그들에게 큰 힘이 되는 필요한 사역이다.

# 11.참고 자료 목록

〈근현대 시리아(Syria) 정치사〉 (21세기 중동이슬람문명권 연구사업단)

〈중동정치의 이해1-레반트지역의 정치발전과 이슬람〉, (한울 2004) p219~228

[http://www.koafs.or.kr/data\\_cluture\\_drink.htm](http://www.koafs.or.kr/data_cluture_drink.htm)

Middle East News 1998. 10. 6일자 (<http://www.mideastnews.com/water001.html>)

<http://islammission.org/islam/culture/clothes.htm>

까르다하(Qardaha) 시청 현지인 시장님과 인터뷰 자료 참조

<http://explanation-guide.info/meaning/Alawite.html>

naver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php?id=41673> 참고

콜먼 사우스, 황남석 옮김 《CURIOUS 시리즈 - 시리아(Syria)》 (휘슬러 2005)

naver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php?id=713845>. 참고

콜먼 사우스, 황남석 옮김 《CURIOUS 시리즈 - 시리아(Syria)》 (휘슬러 2005)

CIA-The World Factbook (<http://www.cia.gov/cia/publications/factbook/geos/sy.html>)

김지희, 《하늘과 땅과 바람의 문명-시리아(Syria)》, (세종서적 2002)

김정위. 《中東史》,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987)

버나드 루이스. 이희수 옮김 《중동의 역사》, (까치, 1998)

앨런 파머, 이은정 옮김 《오스만(Osman) 제국은 왜 몰락했는가》, (에디터, 2004)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636〉 (October 31, 2005)  
([http://www.un.org/Docs/sc/unsc\\_resolution](http://www.un.org/Docs/sc/unsc_resolution))

중동경제 연구소 [http://hopia.net/kime/nation/nat\\_syr.htm](http://hopia.net/kime/nation/nat_syr.htm)

외교통상부 지역정보 (www.mafat.go.kr)

한국아랍친선협회 《시리아(Syria) 경제 환경의 이해》 <http://www.koafs.or.kr>

금상문 외, 《이슬람세계의 정치와 국제관계》, (오름, 1999)

김정위. 〈中東史〉,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987)

21세기 중동이슬람문명권 연구사업단. 〈중동정치의 이해1〉, (한울 아카데미, 2004)

〈시리아(Syria) 경제 동향〉 《국제 지역정보 제3권 8호(통권53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종합연구센터 1999.5.1)

주간동아 2005. 11. 29 512 호